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 행복하게

보도	2023.5.30.(화) 10:30	배포	2023.5.30.(화)		
담당부서	기획조사국 조사총괄팀	책임자	국 장	고영집	(02-3145-5550)
		담당자	팀 장	조성우	(02-3145-5582)
	자본시장조사국 조사기획팀	책임자	국 장	이승우	(02-3145-5650)
		담당자	팀 장	김회영	(02-3145-5663)
	특별조사국 조사기획팀	책임자	국 장	한재혁	(02-3145-5100)
		담당자	팀 장	장정훈	(02-3145-5106)
	자산운용검사국 검사기획팀	책임자	국 장	김형순	(02-3145-7690)
		담당자	팀 장	이현덕	(02-3145-7620)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 조사부문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하여
주가조작 세력을 근절하겠습니다. -

I 개 요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3.5.30일(화)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골자로 하는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출입기자 대상 기자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5.23.)」에서 금융감독원장이 밝힌 바와 같이,
 -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8개 종목 주가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것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명 의식을 바탕으로,
 - 조사부문의 전열을 재정비하고 심기일전하여 비상한 각오로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Ⅱ 주요 내용

진단 및 한계

- 최근 주식거래가 확대되면서 불공정거래 행위도 함께 증가하는 한편, 그 수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추세임

* 금감원 불공정거래 수리사건 : ('19) 127건 → ('20) 165건 → ('21) 180건 → ('22) 232건

- 또한, 미등록 투자업체, SNS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거래 행위에 노출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원장 취임 이후 중대사건 중심으로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주식리딩방, 사모CB 등 다양한 기획 조사를 추진해왔으나,

- 조사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사사건수의 증가나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양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음

향후 대응방안

① 조사역량 강화

조사부문의 실용적 개편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실질 조사인력 증원, 시장정보 분석 능력 제고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

-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대폭 충원(현 70명 → 95명)하고 특별조사팀 및 정보수집전담반·디지털조사대응반 등 신설

☞ (특별조사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중대 불공정 거래 사건 발생 시 총력 대응
☞ (정보수집전담반)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능동적으로 수집
☞ (디지털조사대응반)	가상자산, 토큰증권(STO) 등 신종 디지털자산에 대한 조사기법 등 검토

○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하여 중요사건 중심으로 부서 간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 기획팀(2개)의 조사팀 전환, 충원 인력 조사팀 배치 등을 통해 실제 조사전담인력을 1.5배 이상 증원 (현 45명 → 69명)

< 조직개편 [안] >

현 행			개편 [안]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조사1국	조사2국	조사3국
제보·기획사건	거래소 사건	특징적 사건 (테마주, 복합, 국제)	제보·기획, 거래소, 특징적 사건		
조사총괄팀	조사기획팀	조사기획팀	조사총괄팀	조사1팀	조사1팀
시장정보분석팀	조사1팀	테마조사팀	시장정보분석팀 정보수집반	조사2팀	조사2팀
기획조사1팀	조사2팀	복합조사팀	조사1팀	조사3팀	조사3팀
기획조사2팀	파생상품조사팀	국제조사팀	조사2팀	조사4팀	조사4팀
기획조사3팀	공매도조사팀		조사3팀	공매도조사팀	특별조사팀
			디지털조사대응반		

-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융감독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AI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 정밀 포착
- 금융위·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 가동, 검찰·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등 협업 강화

2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

'23.6.1.~12월말까지 「특별단속반」을 구성·운영하고 관련 불법행위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집중신고기간」('23.6.7.~12.31.) 운영

-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23.6.1.~12월말까지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
 - 투자설명회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 착수
- 주식 등을 매개로 한 리딩방 관련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 유선(1332) 및 온라인을 통한 집중신고기간('23.6.7.~12.31.) 운영

3 기획조사 지속 확대

불법 공매도, 사모CB·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 발굴

-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31건, 21.5억원), 과징금(2건, 60.5억원) 부과,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검찰 통보(6건, 추정 부당이득 692억원) 등 조치

- 조치 완료 이외의 사건(공매도 이용 또는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진행 중

- 그 외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 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 발굴 예정

Ⅲ 맺음말

- 금융감독원은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재정비하고, 유관기관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하에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
-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SNS 등을 통한 투자 권유에 현혹되거나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불공정거래 조사역량 강화 및 특별단속 실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